

# 자신의 빛 감추고 중생과 한 몸 되어...

경허·혜월 스님 등 은둔 선사 33인의 삶 책으로 엮어

**은둔** 조연현 글·사진 | 오래된미래 지음 | 8800원

“수월이 머슴처럼 일하며, 중생에게 배운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정도였다. 그는 절에 손님이 오면 발 감싸개인 감발을 벗겨 손수 빨아서 불에 말려 아침에 신도록 하고, 밤새 몸소 만든 짚신 서너 켤레를 바랑 뒤에 매어주곤 했다. 그의 제자로 당대 선사였던 만공은 생전에 수월 형님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뵈다며 그의 자비심에 환희를 일으키곤 했다.”

지열한 구도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삶을 소개한 책 <은둔>이 출간됐다. 이 책에 등장한 선지식들은 생사를 초월한 고행을 통해 불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선지식들은 단지 깨달음에만 멈추지 않고 불교 수행의 마지막 종착점인 중생과 한몸이 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다.

<은둔>은 경허, 혜월, 일엽, 경봉, 수월, 만해, 효봉, 만공, 응성, 탄허 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33인의 향훈을 담았다. 소개된 스님들 가운데 금봉, 보문, 석봉, 일우 등 절반 가량은 불교전문서나 언론에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지열, 수월, 벽초 스님 등도 제대로 조명된 바 없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인 ‘은둔’이란 단순히 세간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빛을 감춘 채 중생 속에 숨어들어 그들을 돕는 ‘화광동진(和光同塵)’적인 은둔이었다”고 말한다.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던 제선스님이 그 좋은 예라고 저

자는 설명한다. 제선 스님은 도봉산 천축사의 무문관 6년 결사 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철두철미한 수행자로 알려진 그는 6년 결사 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세상에 남긴 흔적이란 고차 부산에서 혼자 배에 올랐다는 소문이 끝이었다. 혹자는 제선스님이 서울의 한 판자촌에 숨어 수행한다고 했고, 어떤이는 남해의 외딴 섬에 산다고 했지만 모두 소문에 그쳤다. 저자는 제선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의 빛을 감추고 세상 속으로 은둔해 버렸다고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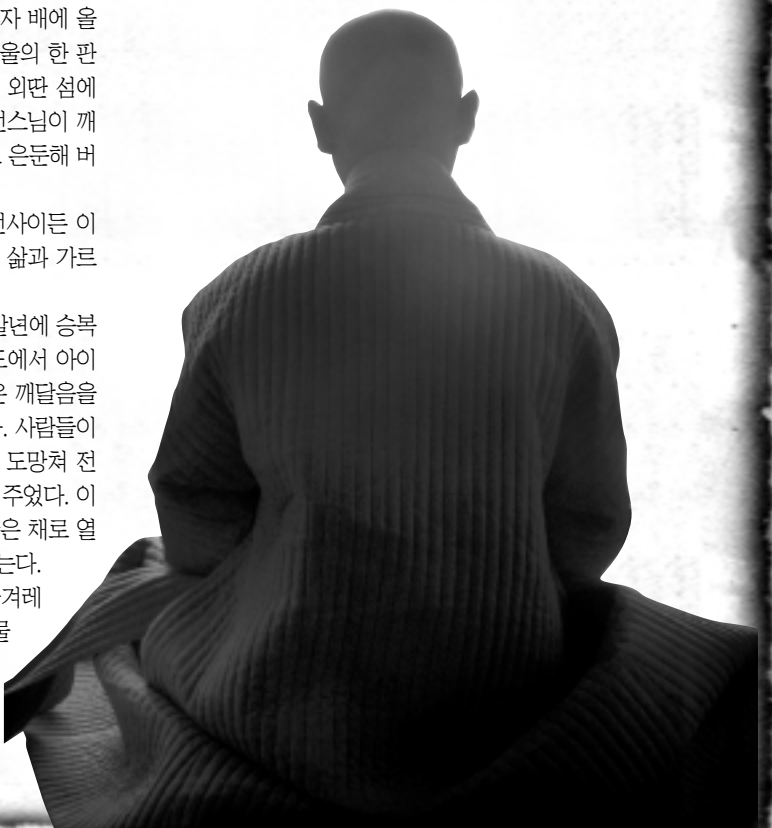
세간에 잘 알려진 선사이든 알려지지 않은 선사이든 이들은 이 책에서 ‘은둔’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그 삶과 가르침이 재구성되고 있다.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선사는 말년에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며 이렇듯 바꾼 채 환경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제자 수월은 깨달음을 얻은 뒤 절에서 불복하나와 나무꾼 노릇을 했다. 사람들이 생활을 몰라봤다며 조심로 대접하려 하면 몰래 도망쳐 전국을 돌며 유랑민들에게 주먹밥과 짚신을 나눠 주었다. 이외에도 생사해탈을 얘기하며 차를 마시던 중 앓은 채로 열반한 혜수 스님 등의 이야기도 진한 감동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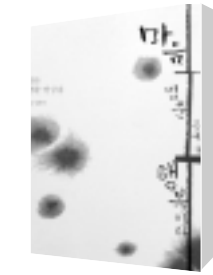
원래 이 책속의 글들은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기획 연재기사가 모태였다. 저자는 기획물인 ‘은둔의 선사’ 흔적을 찾아 전국의 산사를 헤맸고, 그런 스승들을 가슴속에만 묻어둔 수행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깊은 산사의 암자와

선방, 토굴 등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숨은 은자’ 들을 발견했을 때의 감회를 고스란히 이 책에 옮겼다. 수년간 발품을 판 저자에 의해 세상 빛을 보게 된 ‘은자’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전하는 마음 다스리는 생활법문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성타 스님 지음  
은행나무 펴냄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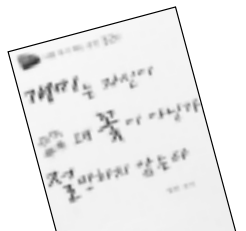
이웃과 공동체의 삶, 세계 평화와 환경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온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이 같은 기회를 실생활 속에서 보다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한 말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책 속에 담긴 글들은 대중적이며 쉽고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생활법문과 크고 작은 세상사를 불교인의 눈으로 본 소회를 적은 시론들이다. 무박하고 정제되지 않은 글 솜씨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책이 끝날 듯 바쁜 우리네 삶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기를 일깨워 준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황소같이 자란다. 실은 불어나지만 두뇌와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스님은 <법구경>에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대화 가운데 내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스님은 많은 이들이 지혜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고 설명한다. 즉 말의 홍수 속에서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배려하며 마음에 따뜻한 힘이 전해지는 ‘말다운 말’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아울러 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피라”고 당부한다. 스님은 “마음을 바로 보면 내가 진정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수행과 기도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 계절별로 읽는 명상 320구



**개미는 자신이 왜 꽃이 아닌가, 절망하지 않는다**  
법안 스님 지음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명상 경구 320개를 계절에 맞게 분류했다. 불교방송 1분 법문에 출연하고 있는 법안 스님(서울 대성사 주지)이 <법구경>과 성현의 말씀 등에서 가려 뽑은 주옥같은 명구들을 한데 모았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변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나쁜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이것이 곧 파멸의 문이다.”

법안 스님은 “우리의 마음을 닦는데 많은 말씀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명상한다면 큰 수행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김주일 기자

### 땀내음 나는 ‘깨달음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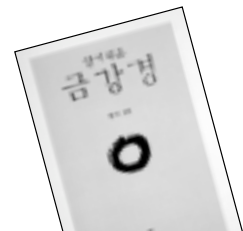


**없는 것의 무게**  
자월 스님 지음  
디오네 펴냄 | 9,800원

젊은 수행이다. 무물이 깨어지고 방석에 떨어진 땀방울 만큼 자신을 낮추며, 깨달음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을 닦는 모습이다. ‘300백 만 배의 공덕’으로 가난한 여혼을 위해 헌신해 온 울산 금어사 지월 스님은 책 <없는 것의 무게>를 통해 부처님을 향한 ‘확철대오’의 길을 잔잔하고 깊은 울림으로 전한다.

지월 스님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와 같고, 아무리 나쁜 말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말은 보물과 같듯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마다 재미있는 예화들도 가득 담겨있다. 하성미 기자

### 읽기 쉽게 풀어쓴 ‘금강경’



**알기 쉬운 금강경**  
정여스님 지음  
혜성 출판사 펴냄 | 3만원

“금강경은 반야의 해맑은 지혜로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에서 네 가지 상을 벗어난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신 생불과 같은 가르침이다. 그냥 읽다 보면 티 없는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고귀한 가르침인 것이다.” <알기 쉬운 금강경 중에서>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은 그동안의 금강경 강의 자료를 모아 이 책을 편찬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행복을 살도록 설한 <금강경>. 특히 초심자도 읽기 쉽게 풀어낸 정여 스님의 <금강경>은 독자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을 가도록 제시해 준다. 하성미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비랑 속 이야기	동학서만집실	운주사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3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영불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절을 기치게 잘하는 법	청건	붓다의 미술
8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9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10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잔의 차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정형육송	1200×600×300(小)	300,000	160,000
정형육송	1300×770×300(中)	400,000	200,000
정형육송	1500×770×300(大)	500,000	260,000
정형육송	1800×770×300(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육송좌탁은 원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직염료로 제작.
-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충청북도) 사용
- ▶ 사용: 차의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부상, 제사상 등
- ▶ 사용법: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 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서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부선 080-999-1080  
입금계좌: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 천소현)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펴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완공 기념 피력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105,000원 (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6월 3일(日) 열립니다.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6월17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  
◆한양선원/6월24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